

이원론 vs. 혼합주의 :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 인식의 전면적인 재구성¹⁾

김기현 한국침례신학대 겸임교수, 로고스서원 대표

국문초록

기독교 세계관은 위기에 봉착해 있고, 그 근본 원인은 세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진단에 있다. 기존의 세계관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근본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글은 혼합주의를 지목한다. 교회가 공과 사의 잘못된 도식에 빠져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정체성 상실이 위기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인가? 현실적인가? 이론적인가? 그 대답을 신구약 성경을 일별하고, 다음은 서구 교회사와 한국교회 역사에서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문제의 원천임을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원론을 비판하는 이론가들의 주장 안에서 혼합주의가 문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문제의 설정을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에서 찾아야 하고, 그럴 때 새로운 세계관 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1. 서론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 더 나아가 세계에서의 실천과 삶의 방식이다. 이 셋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하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때로 그 일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전체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기도 하다. 위에서 보듯이,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다.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 공허한/비현실적인 실천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원론을 공격 지점으로 삼았던 세계관이 이제는 혼합주의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그런 비판(김기현, 2003:21-24, 2004:181-193)이 있지만, 진전된 제안도 없었고, 토론도 부재하였다. 이원론이 아니며, 오히려 혼합주의가 한국 기독교의 근본 문제임이 드러난 상황이기에, 때늦었지만, 오래 묵은 주장을 다시 펼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미구에 들이닥칠 불편하고도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적절하고 적실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구약 성경을 일별하면서,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이스라엘과 교회의 근원이었음을 살펴본다. 다음은 이론적 접근이다. 이원론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송인규와 이만열의 논의를 통해 이 두 사람이 현실진단과 그 처방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접근을 하려고 한다. 서구 교회의 역사에서 콘스탄틴주의와 한국 교회사에서 잘못된 정치

1) 이 글은 2007년도에 발간된 월간 「복음과 상황」에 실린 원고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참여를 개략적으로 살피면서 교회의 세속화, 즉 혼합화가 교회 타락의 문제이었음을 말하려 한다.

다시 정리하면, 이원론을 문제 삼는 것은 첫째, 성경적인가?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여기서 말한 기독교는 성경의 다른 말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이어야 한다. 둘째는 현실적인가? 세계관은 앞서 말한 대로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을 적절하게 해명하고 있는지는 세계관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 셋째는 이론적인가? 주어진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 체계인지를 묻는 것이다. 논리에 체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모순이 최대한 적어야 한다. 앞의 것이 현실 적합성(relevance)이라면, 이번 것은 이론 정합성(coherence)에 관한 것이다.

사실, 나의 이 질문은 기독교 세계관 자체가 요구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총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 + 세계 + 관점이다. 기독교 = 성경적이고, 세계 = 현실이고, 관점 = 이론, 이라고 하겠다. 이원론을 원죄인 양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이론적으로 모순이 보인다.

이런 논지를 펼치기 위한 주된 텍스트는 한국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의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 낸시 피어시(Nancy Pearcy)보다는 국내 저자의 것을 탐색한다. 한국 이론가들의 사유의 출발점이 서구이고, 개혁주의라는 점에서 결코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세계관이라는 것도 기실, 한국교회의 문제를 해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기존 세계관의 존립 자체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고 해체 수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 글은 세계관의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을 주장한다. 건물을 해체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보다는 대폭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적절하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와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이원론에서 혼합주의로, 이원론에서 이원성에 대해 재인식만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고 유익한 이론이자 운동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 기독교 : 성경적인가?

성경은 거칠게 말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의 염원과 달리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를 위협시킨다. 주되심의 주된 장애물은 영역을 구분하는 이원론이 아니라 영역을 혼동하는 혼합주의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일관된 흐름이다. 구약에서는 가나안 문화와 바벨론 제국의 철학에, 신약에서는 유대적 율법주의, 헬라적인 영지주의, 로마적 제국주의와 갈등과 투쟁을 묘사한다. 그 가운데 세상의 지배적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구별된 존재의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한다.

1) 구약 : 언제까지 머뭇거리려는가?

구약이 혼합주의를 적대시한다는 것은 많은 본문이 지지한다. 몇몇 텍스트를 언급한다면, 창세기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 출애굽, 여호수아의 세겜에서의 고별 설교,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진단, 바벨론 귀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본문들은 구약의

전체 역사를 거의 포괄한다. 일관되게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증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1장에서부터 시작한다. 바벨탑을 쌓아서 창조 세계의 청지기됨을 부인하고 지배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인간 군상들의 세계 - 더 정확히는 바벨론 제국이며, 이전과 이후의 모든 제국을 가리킨다. - 에서 불러내서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그는 먼저 옛 체제로부터 떠나야 하고, 다음으로 지배와 폭력이 아닌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한 민족을 구성해야 할 사명을 안고 있다.

출애굽은 이 점이 극명하게 드러낸다. 애굽에서 그들의 실존은 십계명의 서문이 규정하는바, 노예였다. 그곳에서는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소수 민족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예삿일이다. 그러기에 출애굽의 명분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폭력에 근거한 강자의 지배와 약자와 소수의 배제가 횡행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전일적으로 실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19:6)를 건설하는 과제를 안고 탈출한다.

세겔에서 행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투쟁은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뿌리 깊은 이방과 이교 문화와의 결별을 촉구한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겼음을 뜻한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엘리야도 다르지 않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힐문한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 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왕상 18:21)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열왕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잘못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왕하 17:7-8)

남유다 역시 이방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길을 반복한다. 그들은 뺏속 깊이 이교 문화와 이방 신을 사랑하였다. 히스기야와 요시아 개혁의 요체는 그들 속에 자리 잡은 세상의 잔재를 청산한다. 히스기야는 모세의 늦밤이 하나님 대신 분향하자 파괴하고, 요시아는 성전 안에서 횡행하던 이방 예배를 제거한다. 구약의 개혁과 부흥은 종교 혼합적 관습의 타파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자 하나님을 잃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던진 엘리야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2) 신약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혹독하게 비판하기는 신약도 맥을 같이 한다. 하나님과 재물, 세상의 영성의 알맹이인 맘몬의 정신을 갖고서는 결코 참 제자가 될 수 없다. 돈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돈이 가진 우상성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던 엘룰조차도 돈을 죄악시하지 않았다. “부는 유혹이다. 부 자체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다.”(엘룰, 하나님이나 돈이나, 59) 신자에게 재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하는

것에 있다. 신앙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예수가 원했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관한 복음서의 대답은 간명하다. 대조 사회로서의 교회이다. 교회는 “마땅히 여느 민족들과는 다른 사회질서를 가진, 거룩한 백성이”다.(로핑크, 1997?:202) 하긴 그렇다. 세상과 똑같거나 유사하다면 뭐 하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겠는가. 산상수훈은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삶의 지침이 가득하다. 축복 개념을 전복하는 팔복, 세상 혹은 도덕과 종교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더 나은 의 등은 세상의 삶의 원리와 정반대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으로 규정한다.(롬 12:1-2) 리처드 헤이스는 「신약의 윤리적 비전」에서 이 구절이 “신약 윤리학의 과제”라고 간결하고도 힘찬 말로 마무리한다(Hays 2002).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필리스 역본과 유진 피터슨의 Message처럼, 세상의 틀에 맞추거나 그 문화에 의해 순응하지 말라는 뜻이다.

요한의 기록들은 대조 교회 - 헤이스는 반문화 공동체라고 한다. - 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요한 공동체 내부의 지독한 사랑과 섬김의 강조는 그들을 배척한 다수요 강자인 유대 공동체와 선명한 대척점을 보여준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예수의 선언은 로마 권력의 절대화를 뒤집어 하나님의 권한 아래로 복속시킨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지만(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not of the world)는 말이다. 세상과 전혀 달라서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며, “위험한 사회적 위치 이동”을 불가피하게 감수하는 삶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증인들이 구름 떼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들을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서성대는 이들에게 임한다는 본문을 예시하자면, 성경 전체를 말해야 한다. 세상으로부터 돌아섬의 회개,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는 의미의 거룩 등에 이르기까지 신자의 적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문제는 혼합주의다.

3. 세계 : 현실적인가?

현재의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주된 흐름과도 상치되고, 이론적으로 현실을 설명하는 프레임으로 부족하다. 더 나아가 우리네 현실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세상과의 혼합이 더 큰 골칫거리이다. 이 점을 나는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교회를 간단히 훑어보고,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구 교회 : 콘스탄틴주의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잡지인 <크리스치니티 투데이>는 6·70년대 “정부의 매파들보다도 더 매파적인 입장에서 전쟁의 노력을 끝까지 지지했다.”(호튼, 세상의 포로 된 교회, 207) 오스기니스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찰국가의 사명을 저버리는 때부터 약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보어전쟁을 승인했고, 프란시스 쉐퍼는 월남 전쟁을 지지했다. 찰스 콜슨은 국방장관이었던 럼즈펠드에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정당하다고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도 서슴

지 않는다(김기현, 2003: 18-19).

로널드 사이더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양심 선언」(IVP)에서 북미교회가 빠진 영적이고 도덕적 수렁이 얼마나 깊고 너른 것인가를 고발한다. 세상을 그대로 빼다 박은 치부를 낱알이 들추어내는 통에 거북하다. 그가 들이대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이혼, 돈, 성, 인종 차별, 가정 폭력에서 불신자와 신자는 무론하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조차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런 탄식은 개혁파 신학자 마이클 호튼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복음주의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미국제가 되었고,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복음주의 운동이 현대 세속 문화의 사상에 거의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복음주의자들이 ‘세속적 휴머니즘’을 공격하고 있다.”(호튼, 79) 그러니까 자신이 세상이면서 세상을 변혁한다느니,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라느니 하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아이러니’다.

그는 초치일관 기독교를 문화와 등치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거부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과 유익을 미국 혹은 우리의 특정 정당의 목적 및 유익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증거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주장이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진리가 아님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호튼, 165)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이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항상 개혁의 일차 과제라는 점은 동일하다.

이는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그 근원을 추적하면, ‘콘스탄틴주의’라는 신학적 이념과 “기독교 국가/사회”(Christendom)라는 사회적 체제에 다다르게 된다. 내가 사용하는 혼합주의는 콘스탄틴주의와 같은 뜻이다. 개념적으로 교회와 국가의 동맹인 콘스탄틴주의는 교회의 이익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스템이다. 교회는 국가의 이익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주고, 국가는 교회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그 골자이다. 이해관계라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예언자적 비판 보다는 권력 다툼이고, 실제적 이익 공유가 되지 않고 충돌을 빚은 경우이고, 큰 틀에서 봉합되곤 하였다.

때문에, 많은 신학자는 서구 교회 타락의 기점을 콘스탄틴주의에서 잡는다(Hall, 1997, Newbigin, 2008). 교회 회복의 대안은 콘스탄틴주의의 극복의 다른 이름이다. 콘스탄틴주의에서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중요한 행위자이기에, 교회다움을 강조하고, 사회와의 대조성을 부각하면, 이원론이다, 분리 모델이다, 분파주의이다, 도피주의이다, 라는 비판을 하기 일쑤다(김기현, 2020:148-150).

그러나 니체의 말은 치명적이다.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뿐이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내기 조카 워우드에게 살짝 들려준 교회 진단은 실로 혹독하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²⁾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기독교 비판자인 니체나 지난 세기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인 루이스의 말이 하나같이 일치한다. 교회가 문제다.

인도에서 오랜 선교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뉴비긴은 당혹과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열악한 빈민가의 인도인들보다 부유한 영국의 런던을 활보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다.(Newbigin, 대장간: 12) 또한 선교국인 영국이 피선교지인 인도보다

2) C. S.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김선형 옮김, 흥성사, 21.

더한 선교 대상국이였다. 서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먼저 들어야 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뉴비긴이 진단한 영국과 다른가? 한국교회는 자신부터 변혁해야 하고, 전도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변혁의 대상이며 최악의 전도 불모지이다.

2) 한국교회 : 혼합주의

서구 기독교가 콘스탄틴주의라는 이름의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달리 기독교 국가 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일괄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은 온당한가?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렇다. 탈기독교 사회인데도 기독교 사회 이념과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현상과 인식이 별개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였다.

사회 참여의 경우만 보자(김기현, 2020a: 27-29).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이승만 정권을 기독교 정권이라 칭하고 3.15 부정선거가 공정했다는 최초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기독교이였다. 박정희 정권을 로마서 13장의 이름으로 복종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마치 계시록 13장의 원수로, 악마화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가. 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도자를 성경으로 옹호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리이었던 전두환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한 것은 이원론적 행동인가, 혼합주의가 배태한 비극인가.

2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가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국가보안법 수호와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 것, 광화문 광장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자국의 대통령을 향한 심한 모독적 발언이 거침없었던 것,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므로, 그날에는 국가시범을 치르지 말자는 주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은 더욱 심각하다. 정치적으로는 전광훈의 8.15 집회와 종교적으로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예배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세상과 동떨어진 교회이고, 이원론에 빠진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기본적인 상식도 부재한 집단으로 비판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당시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세상의 심판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주의할 점은 정치 참여 자체나 진보나 보수냐, 또는 좌파냐, 우파냐의 진영 논리에 입각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회의 정치 참여나, 그 칼라가 극우에 가깝다는 것은 논쟁할 사안이지 참여 자체가 시뻐거리는 아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정치적 견해가 있으며, 공적 광장에서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들이 서로 공존한다. 그러므로 보수 교회의 정치적 행위와 특정한 이념적 성향이 정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문제는 “교회와 국가의 차이 혹은 신실한 교회와 신실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는 하나는 정치적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정치적이란 것이다.”(Yoder, *Body Politics*, ix.) 성조기와 태극기의 결합, 미국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에 있다. 이는 신의 이름으로 국가 이익을 합법화하는 것이며, 예배라는 미명으로

드리는 정치 집회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종교적이다. 우려할 점은 종교가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종교화되는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³⁾ 구교형이 어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세상에서 살겠느냐고 한마디 덧붙인다. 가슴 아프지만 가장 정확한 한국교회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뜻을 좇는 것이 신앙의 근본인데도,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 된 지 오래다. 이제 “한국교회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의 연사가 자기 부인의 정도를 넘어서 자기 학대가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수천 년에 걸친 장엄하기조차 한 기독교의 역사를 보건대, 그리고 지난 백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가 지닌 힘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하지만 적은 언제나 내부에 존재하는 법이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 요인도 한몫하지만, 일차적으로 한국교회 자신이다. 불경 왜곡은 불교이고, 사서삼경을 오도하는 것은 유림이듯,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것도 기독교인이다.

بات모 섬의 요한은 지배적인 정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은 신앙의 논리적 귀결임을 환기한다. 세상의 정치 체제와 갈등은 필연적이다. 세상 권력에 의해 살해된 무죄한 어린 양을 노래하는 것은 그만큼 서슬 퍼런 국가의 횡포를 고발하는 것이다. 그것이 짐승인 한에 있어서 어찌 대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대 문화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혼동하는 것이 콘스탄틴주의요, 혼합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타협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래서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전반적인 메시지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을 그으라는 것이다.”(헤이스, 『신약의 윤리적 비전』, 282.) 이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고 적실하다.

4. 관(view) : 이론적인가?

기독교 신앙의 요체는 주되심(lordship)이다. 그러나 주되심의 장애물은 이원론에 있지 않고 혼합주의에 있다는 것을 세계관론자들은 부지중에 말하고 있다. 송인규는 누구보다도 이원론에 예민하고, 촘촘한 설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의 『평신도 신학』에서 이원론은 한 부분이지만, 일상, 소명, 예배, 제사장, 성전, 안식, 주의 일 등은 직간접적으로 이원론을 겨냥하고, 총체적 주되심의 회복에 공을 들인다. 모든 영역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송인규, 『평신도 신학』, 7).

그는 이원론을 이렇게 정의한다. “두 가지 서로 다른 실체나 영역 혹은 양상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다른 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현상.”⁴⁾ 개념 자체로 보면, 이원론은 기독교 신앙과 부합한다. 예컨대, 하나님과 세상, 초자연과 자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와 일치한다. 아무리 기독교가 이원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양자 사이의 공통점이 많아도, 선이 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원론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3) 구교형,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복음과 상황』, 188(2006. 7. 15), 28.

4) 송인규, 『평신도신학』, 흥성사, 211.

정작 문제가 되는 이원론은 성속적 이원론이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실체/영역/양상이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데, 거룩한 것에 해당하는 가치를 속된 것에는 부과할 수 없다”⁵⁾는 생각이다. 이는 창조 가치를 무시하고, 세상 영역으로부터 후퇴하게 만들고, 주되심을 축소한다.⁶⁾ 하지만 ‘세상 정신’과는 대립하되 세상을 긍정하는 것과 상충된다. 성경에서 세상은 창조 전체와 그 가치관을 일컫는다. 그런데도 정신으로서 세상과 분리를 오해하여 세상에서의 모든 활동을 무가치하고 심지어는 사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의 의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전체를 가리키는 세상1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상징되는 세상의 정신인 말하는 세상2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하여 그는 세상 1과 2 사이의 교착된 혼동을 떨쳐내고자 한다. 세상2와 싸우라는 말씀을 세상1로 짐작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오류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영역이 아니라는 것, 성과 속, 주의 일과 세상일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실로 위험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일이 주의 일인데, 어찌 금을 그어놓고 성과 속을 가르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논리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성경 이해이다. 두 본문은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질책하지 않고, 세상과 혼음하는 교회를 질타한다. 영역을 구분하는 성속의 이원론이 아니라 성과 속이 혼합되는 것, 성에 의해 속이 변혁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의해 성이 잠식당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 본문이야말로 공동체 내에 얼마든지 세상 정신이 침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구절인 셈이다. “어떻게 해석하든 성속적 이원론의 세상관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속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⁷⁾

다른 하나는 현실 파악과 관련된 것으로, 한국교회는 세상 1과 2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2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실상 장악당한 것이 문제다. 송인규가 명명한 세상 1을 성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늘 우리의 문제도 아니다. 그도 인정하듯이 신자가 씨름해야 할 상대는 세상 2이다. 세상의 정신을 교회는 내면화하고 있기에 야고보는 그 교회와 신자를 향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엄히 경책한다. 바울의 염려가 세상과의 분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정신의 교회 내 침투 문제”⁸⁾라면, 한국 기독교 세계관의 분투도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아닐까.

현실 인식과 평가의 엇갈림의 또 다른 사례는 이만열이다. 그는 한국 기독교와 한국 문화의 만남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한다.⁹⁾ 적응형, 충돌형, 몰입형인데, 이는 리처드 니버의 다섯 가지 유형의 변형인데, 독특하고도 탁월한 정리(?)이다. 그는 문화도 세 가지로 구분한다. 물질 문화, 행동 문화, 정신 문화이다. 이만열은 한국교회는 물질 문화는 적응, 행동 문화는 충돌, 정신 문화는 몰입이었다고 평가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 문화이다. 적응했던 물질 문화는 사실상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근대 서구와 과학 문명이었고, 충돌을 빚었던 흡연이나 음주, 제사 등은 점차 상보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5) Ibid., 219.

6) Ibid., 222.

7) Ibid., 237-8.

8) [평신도신학1], 56.

9) 이만열, “한국 문화와 기독교,” 『기독교사상』(1987, 1월호) 31(1), 49-62.

중이다. 문제는 정신 문화인데, 기독교가 한국 문화에 정복 당했다는 점이다.

기독교적 인간관 및 가치관 등은 그 독자성을 상실하고 도리어 점차 한국 문화에 몰입되어 갔던 것으로 느껴진다. 언뜻 보면 이 부문에서 기독교가 한국 문화를 변혁한 것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자세히 음미해 보면, 그 반대라 생각된다.¹⁰⁾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으로 한국 사회와 스며들면서도 한편으로 갈등을 빚고, 다른 한편으로 변혁을 꾀해야 하는데, 도리어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의 가치관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잠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한국 기독교의 근본 문제를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만열은 정확한 현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처방전은 그에 걸맞지 않다. '신앙의 이원론적 현상'을 지적하면서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을 대안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사례 중 기독교의 것을 보자. 교회의 분열은 남북의 분열과 파당 현상에 못지 않다. 이는 세상을 변혁하느냐 마느냐의 사인 이전의 것으로, 교회가 세상을 닮았다는 진단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만열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무속 신앙과 한국의 전통문화에 한국 기독교가 물든 것으로 평가한다. 전통문화에 잠식당했으니 변혁을 당한 것이고, 이만열의 어휘를 그대로 빌리면, '정복'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착시 현상이 벌어진 것은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내는 패러다임을 갖지 못함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와 신앙의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패러다임에서 성장했고, 그 이론에 길들여진 탓이다. 보고도 보지 못하고, 본 것이 없다. 그의 말대로 세상에 몰입한 한국 기독교는 세상과 혼합/혼음한 것이지, 세상과 담쌓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지 않는가.

5. 이원론에서 이원성으로

기독교의 유일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의 주되심에 반하는 최대의 맞수를 지금껏 이원론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유지됐다. 피조세계에서 차지하는 창조주의 주권과 능력을 제약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말의 의심조차 없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해서 이원론이야말로 기독교의 사회 변혁적 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적 걸림돌로 못사람의 지탄을 받았다. 과연 그런가? 이원론이 모두 잘못인가? 아니 이원론은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하나는 일원론 체계 안에서도 이원론/이원성이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원론은 배격하더라도 이원성은 적극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존재론적 일원론과 윤리적 이원성을 제한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원론과 이원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일부터 하자.

먼저 이원론과 이원성을 구분해 보자. 이중성은 성과 속의 양면이 공히 한 존재나 사실 안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반면, 이원론은 "현실을 근본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범주, 곧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눈다."¹¹⁾ 예컨대,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10) Ibid., 53.

11) 「그리스도인의 비전」, 117.

긴장은 이원론적으로 말끔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혼한 말로, 동전의 양면이요, 새의 양 날개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영적인 측면과 영역으로 국한하려는 것이 이원론의 전형이다.

존 요더는 “이원론 없는 이원성”을 제안한다.(Yoder, 2012: 62) 달리 말하면 일원론 안의 이원성이다. 하나님에게서 두 가지 존재나 영역, 차원은 없다.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둘은 이원론적으로 존립하지 않는다. 교회이든, 사회에서든 주되심 하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원론이다.

다음으로 이원론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그저 단순히 이원론이 문제라고 말할 수 없다. 1세기 유대교의 신앙과 예수의 역사의 궤적을 추적하는 톰 라이트는 당시의 유대교가 분명 이교 사상과 이원론과 투쟁하고 대항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원론이라는 말을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건다. 구약과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원론과 오늘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는 이원론을 뒤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요는 유일신 사상이 거부하는 이원론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용하는 이원론이 있다.

톰 라이트에 따르면, 이원론에는 단 하나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열 가지가 존재한다.¹²⁾ 이원론의 개수가 얼마인지, 그 각각에 대한 그의 분석이 정밀한지 아닌지에 나는 관심이 없다. 주되심의 중심에 이원론적 요소가 자리한다는 것이고, 이원론과의 대결만을 염두에 두는 세계관 논리는 내적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의 세계관이 불편해 하지 않았던 이원론이 실체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는 열 가지 이원성의 유형은 세 가지로 다시 분류된다.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가능한 것, 주변적인 것이다.¹³⁾ 첫 번째에 속한 것으로는 한 분 하나님 이외에도 다른 천상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학적/존재론적 이원성, 창조주와 피조 세계를 구분하는 신학적/우주론적 이원성,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도덕적 이원성,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는 종말론적 이원성이다. 때로 이런 것들이 이원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판받지만 아무런 갈등 없이 포용해야 하고, 수용해왔던 견해들이다.

분류하기에 조금 애매하고 까다로운 것들이 수용과 거부의 중간에 끼어있다. 이성과 계시를 구별하는 인식론적 이원성,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다른 집단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분파적 이원성, 인간의 안의 선과 악의 두 성향을 인정하는 심리학적 이원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에세네파와 바리새파는 분파적 이원성을 받아들였고, 이교도들에 대해 관용적 태도를 취한 집단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능한 형태이다.

명백하게 반대하는 이원성의 형태가 있다. 신학적/도덕적 이원성은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상징하는 논리다. 우주론적 이원성의 고전적 모습을 플라톤으로, 세계는 비물질적 세계의 그림자로 비본질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리고 인간론적 이원성은 영혼과 육체의 위계질서를 수립하고 그중 하나를 우선시하는 태도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세계관이 부정하였던 이원론의 실체이다.

내가 말하는 도덕적 이원성은 톰 라이트의 것과 다르다. 톰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도덕적 이원성이 아니라 이원론을 말한다. 선과 악의 우주론적인 이원성은 여기서 말한 이원론에 해당한다.

12)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418-421.

13)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424.

선과 악의 주권자요, 때로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보건대, 선과 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존재론적인 선악 구분이 아니라 도덕적 삶의 구분이라는 점에서 윤리적 이원성이다.

사실, 이원론과 이원성을 구분하자는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현수는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발간한 자료집 「성경적 세계관」의 “타락”에 실린 글에서 이원론을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그에게 기독교는 계시종교이고, 이원론은 ‘인간의 경험이나 사색에서 나온’ 것이다. 기독교의 창조 신학에 의하면, 세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은 배격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원론이라고 모두 정당하지 않다. 그는 대표적인 경우로 해방신학을 지목한다. ‘하나님 나라와 불의한 세상 제도의 변혁을 동일시’하는 것은 이원론의 대안이 아니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떼어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해방신학이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마르크스주의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를 떼어놓고 방법론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양자를 엄격히 분리하는 이원론도 마땅치 않다. 그저 교회 안에 머물고 기도에 전념하는 영성의 한 극단과 인간을 억압하는 일체의 잘못된 체제와 맞서는 해방의 영성이라는 다른 극단 사이에서 이분법을 넘어서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김현수는 묻는다.

놀랍게도 그는 ‘이중성’을 제안한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탄을 섬기느냐의 ‘이중성’ 개념을 취하면 이원론자들처럼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고 세상에서도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한 일원론자와 달리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과 종말론적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그가 제안한 이중성은 혼합주의를 근본 문제로 설정하고, 그 대안은 존재론적 일원론과 윤리적 이원론 혹은 이원성을 제시하는 나의 논지와 맞닿아 있다.

나는 좀 더 세계관적인 언어로, 존재론적 일원론, 윤리적 이원론/성이라고 호명하고자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는 것이 없고,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일원론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윤리적 이원론이다. 세상과 구별된 삶은 이원성으로 나타난다. 교회가 세상과의 구별됨(윤리적 이원성)이 없이는 존재론적 일원론을 추구하는 것은 획일화에 이르고, 다원성을 간과하게 된다. 나는 김현수가 자신이 제안한 이원성을 좀 더 밀고 나갔더라면,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진영이 그의 조언을 새겨들었다면, 그 이후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와 신자의 삶에서 잘못된 이원론적 요소가 전혀 없는가? 톰 라이트에 따르면, 유일신 사상에는 이원론과 혼합주의가 모두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포괄적 창조 신앙을 외딴으로 강조하면 범신론과 이교 사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배타적 계약에 방점을 찍으면 심각한 이원론에 사로잡힌다.¹⁵⁾ 현재 우리의 상황은 전술한 바와 같이 훨씬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14) 김현수, “이원론의 올바른 극복을 위하여,” 「성경적 세계관 자료집」(서울: 기독교학문연구회, 1991), 89.

혼합주의다.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이원론이 기독교 세계관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이원론이라는 오류에 함몰할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원론 역시 명백한 오류이자 오해이다. 즉, 기독교 세계관은 이원론만을 문제 삼거나, 반대로 혼합주의만을 시비하는 것은 유일 신앙의 두 가지 편향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를 동시에 배척하면서도 우리의 과제와 의제는 이원론보다는 혼합주의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일차적 과제는 예수를 위해 무언가 할 일을 찾기 이전에 예수부터 제대로 믿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묻는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가요?” 예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요 6:29) 제자들이 해야 할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라면,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부터 예수를 믿어야 한다.

너무나 세상을 닮아서 도무지 세상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교회가 어떻게 예수가 원했던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성찰해야 한다. 우리의 염려는 “죄 많은 이 세상으로 충분한가?”에 있지 않다. ‘이원론’(dualism)이 아니다. 문제는 교회요, ‘혼합주의’(syncretism)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화두는 이렇다. “죄 많은 이 교회로 충분한가?”

6. 혼합주의만 문제인가?

한국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오랜 염원은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이다. 교회 갱신은 교회 정체성의 회복이고, 사회 변혁은 적절성의 유지이다.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개인의 경건도 추가해야 하지만 말이다. 데이비드 노글이 말한 대로, 기독교 세계관은 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영적으로도 큰 유익이 있다.(Naugle, 2018:568-74) 어느 하나라도 배제하거나 약화하여서는 안 된다.

실제로 80년대에 세계관에 목말랐고, 혼신을 다한 이유는 한편으로 교회에 대해 답답함과 실망과 분노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학생운동과 사회 운동 진영의 주류 이론인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과 운동 방법으로서의 폭력에 대한 불안감, 그러나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작용하였다(김현수, 2004: 231-32). 이것은 그 시대에 사회 참여를 고민했던 보수적인 기독 청년들의 공통 고민이었다.

그러므로 교회 갱신과 사회 참여,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이고, 국면에 따라 강조점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다만, 나의 주장은 교회 갱신이 사회 변혁의 전제조건이어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회 참여 역시 문제 많은 교회의 성품에 의해 왜곡된 참여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딜레마 또는 긴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오늘의 기독교가 처한 두 가지 위기를 상관성과 동일성이라고 말한다.(13-37). 사도 요한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말들의 공통분모는 갱신과 변혁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15)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427.

하지만 몰트만의 지적처럼 세상에 참여할수록 교회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기에 봉착하고, 반대로 교회가 고유한 색깔을 옹호할수록 세상과의 관련은 멀어지게 된다. 이런 딜레마는 성서에서도 볼 수 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소수의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 예배와 십일조, 안식일을 회복하고, 이방인과 결혼한 이들이 이혼하도록 촉구하였다. 반면 요나서의 하나님은 패악한 도성 니느웨마저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예언자를 파송한다. 앞의 정경이 거칠게 말해 배타적 민족주의라면, 후자는 보편적 국제주의이다.

성경이 이러한 갈등 구조를 감추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것을 새겨야 한다. 세상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흐르는 물과 함께 흐르려하는 상황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자기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의 관련성 자체를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나서가 귀한 것이 바로 이 까닭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 만민과 열방 위에 머무른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상황이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혼합이라는 지적에 설령 동의하더라도, 혼합주의 경계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는 이원론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건대, 양자의 균형과 긴장을 늘 유지해야 한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마땅히 역사적 선택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밀고 나아가되, 그 결과와 심판은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기억하면 된다.

그래도 한국교회의 문제가 어찌 혼합주의에만 있겠느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여전히 세상과 담쌓고 지내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혼합주의를 피하려다가 기독교가 계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답답해한다. 맞는 말이다. 예수 공동체는 쿤란 공동체가 아니다. 변화산 아래의 신음 소리는 귀 달고 산 위의 구름 속에 동동 떠다니며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산에서 변화된 예수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자라면 산 아래의 질곡과 질고에 눈을 열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대조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은 결코 격리나 후퇴가 아니다. 로핑크는 대조 교회는 “만민을 위한 징표”라고 역설한다.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이스라엘 선교에 집중하면서도 만민을 가르쳐 제자 삼으라고 한 것을 예로 든다. “예수가 이스라엘에 전력을 집중한 것은 필경 보편주의가 모자라서도 아니요, 지평이 한정되어서도 아니요, 세상을 등져서도 아니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가 모든 민족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예누리 없이 전제했기 때문이다.”¹⁶⁾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의 전략이다.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세상과의 대조를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 현재의 교회가 혼합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호튼의 단언처럼, 교회의 깊숙한 중심이 세속적인 전제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 사회를 구할 수 없다.¹⁷⁾ 다른 한편으로 대조성 강화가 세상 변혁의 전제조건이자 선결과제다.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또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그 까닭에, 교회가 세상으로 변해서는 안 되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¹⁸⁾ 만민을 위한 징표로써 대조공동체라는 좁고 협착한 길에 서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

16)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25.

17) 호튼, 「세상의 포로 된 교회」, 103.

18)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38.

7. 결론

이상에서 나는 기독교 세계관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핵심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안목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이원론보다는 혼합주의를 더 문제 삼으며, 역사적으로 서구와 한국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기는커녕 세상과 일체가 되다시피 하여, 세상과의 구별성, 즉 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 이원론을 문제 삼는 이들의 논리를 추적해 본 결과,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적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문제를 이원론으로 귀속시키고, 대안은 혼합주의 극복이 아니라 이원론의 극복하자는,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친다.

이 논문의 대안 제시는 첫째, 문제 인식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문제이다. 둘째, 이원론에서 이원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원론 없는 이원성이라고 해도 되고, 존재론적 이원론과 윤리적 이원성이라고 해도 된다. 세상과의 구별됨,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방도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은 교회의 교회다움이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오도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이원론 vs. 혼합주의 :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 인식의 전면적인 재구성	발표자	김기현
		논찬자 (소속)	최태연 (백석대 교수)

이 논문은 기존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김기현 교수(이하 김 교수)의 진단과 대안을 담은 논문이다. 김 교수는 한국 기독교세계관 운동의 흐름에서 소크라테스와 키에르케고어가 했던 역할¹⁾을 담당하는 ‘혁신적인’ 신학자이자 기독교철학자다. 김 교수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기독교세계관이 속한 신학 전통인 개혁주의와 요더나 맥클랜던이 속한 아나뱃티스트 전통을 넘나들면서 신학적-철학적 사유를 하는데 기인할 것이다. 이 점에서 그의 사고의 혁신성은 신학적 이종교배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 논문의 주장도 그의 신학적 입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그의 주장은 크게 두 묶음으로 모을 수 있다.

첫째는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비판이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세계관이 처한 위기의 원인은 교회와 세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진단이 잘못된 데 기인한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고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정체성 상실”이 근본 문제인데 기독교세계관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이원론’이 문제라고 보고 “교회가 공과 사의 잘못된 도식에 빠져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진단은 오히려 ‘공허한/비현실적인 실천’을 초래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교회와 세상의 혼합주의’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 ‘올바른’ 진단이라고 본다.

둘째는 혼합주의라는 진짜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은 기독교세계관의 폐기가 아닌, ‘용도 변경’ 내지 ‘리모델링’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 리모델링의 모델로서 요더의 ‘이원론 없는 이원성’²⁾, 개념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존재론적) 일원론 안의 (윤리적) 이원성’을 인정하자고 제안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일원적인 하나님의 주되심(주권)을 인정하되, 윤리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탄을 섬기느냐’의 치열한 대결의 이중성을 인정하자는 뜻이다. 김 교수는 이 입장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고”, 동시에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과 종말론적 긴장을 유지하면서”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교회사의 심각한 오류인 ‘콘스탄틴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조사회’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김 교수의 진지한 모색이 담긴 논문을 읽고 논평자로서 몇 가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1) 김교수의 이원론 비판의 핵심은 ‘이원론/이원성’의 표현의 차이에 있지 않다. 김 교수 자신이 때로 두 용어를 혼용하기 때문이다.³⁾ 핵심은 김교수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세상과의 혼합에 빠져 정체성을 상실한 ‘혼합주의’에 있지, ‘신앙과 삶의 분열’로 인한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부재’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연 이 주장은 정곡을 찌른 것일까?

논평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두 문제는 모두 한국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두 차원이지만 양자택 일의 성격이 아니다.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기독교세계관의 ‘이원론 비판’에 담긴 핵심 주장은 교회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주되심 아래 있는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이므로 이 세상이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세계관 운동에서는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와 달리 사탄에게 침략당한 이 세상도 하나님나라로 봐야 하고 단지 ‘영혼구원’만을 교회의 존재목적으로 삼지 말고 ‘세상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삼자고 주장한다. 김 교수는 사실상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와 세상, 만유의 일원성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⁴⁾

그가 문제의 참된 원인으로 보는 ‘교회의 혼합주의’는 교회가 일원론과 일원론 중 어떤 입장에 기울건간에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죄의 모습이다. 이 점에서 김 교수의 혼합주의 비판의 중요성에 동의한다. 이 죄악은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가 황제와 제국의 힘을 빌어 권력을 행사하거나 황제와 영주 위에 군림하던 중세까지의 교회나 이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대교회와 근대교회의 잘못된 ‘크리스텐덤’(기독교국가)을 반성한 현대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난 모습이다. 한국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킨 근본주의적 성향의)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이 죄악을 볼 수 있으며 기독교세계관에 동조하는 개혁적인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후자가 전자보다 상대적으로 혼합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혼합주의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답은 (김 교수의 입장과 동일하게)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성경대로 사는데 방법이 다양할 뿐이다.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대립(antithesis)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기독교세계관)도 있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 교회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대조사회를 만드는 방법(아나뱃티스트)도 있다. 두 진영 모두 인정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버림받아 불타 없어질 사탄의 왕국이 아니고 회복될 하나님나라며 종말까지 사탄이 주는 ‘혼합주의’와 싸워야 할 전쟁터라는 사실이다.

2) 사실 김 교수의 논변의 상당부분은 기독교세계관의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만유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원적으로 보는 점이며 교회가 사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이원성의 측면이다. 다만 강조의 차이가 드러나 보인다. 개혁주의 안에서도 카이퍼를 충실하게 따르는 신칼뱅주의와 웨스터민스터 신학을 발전시킨 호튼의 에스콘디도 신학의 강조점이 다른 것과 유사하다. 김 교수는 교회를 오염시킨 콘스탄틴주의와 혼합주의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대안은 ‘교회의 대조성 강화’라고 역설하면서 그것만이 “세상 변혁의 전제조건이자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다. 논평자의 생각으로는 교회의 대조성 강화가 성경적인 교회의 필요조건이라면 복음주의 교회가 빠져있는 이원론의 극복은 그 충분조건이다.

3) ‘혼합주의’와 ‘문화융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도 그 교회가 속한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대문화를 거부하는 아나뱃티스트 전통의 아미쉬 공동체도 18-9세기의 주거와 농업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교회가 성경적인 영성과 가치관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이다. 그것이 과거의 유교와 현재의 자본주의와 과학기술 문화 속에 처한 한국 교회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상 부족한 논평을 마치면서 김 교수가 주신 새로운 숙고와 자극에 감사드린다.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세상과의 대조를 강조하는 것은 한편으로 현재의 교회가 혼합주의에 깊이 몰들어 있기 때문이다. 호튼의 단언처럼, 교회의 깊숙한 중심이 세속적인 전제에 따라 행동하는 한 그 사회를 구할 수 없다.⁵⁾ 다른 한편으로,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또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바로 그 까닭에, 교회가 세상으로 변해서는 안 되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⁶⁾ 만민을 위한 징표로써 대조공동체라는 좁고 협착한 길에 서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

이 논문의 대안 제시는 첫째, 문제 인식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원론이 아니라 혼합주의가 문제이다. 둘째, 이원론에서 이원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원론 없는 이원성이라고 해도 되고, 존재론적 이원론과 윤리적 이원성이라고 해도 된다. 세상과의 구별됨,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교회 갱신과 사회 변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방도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은 교회의 교회다움이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오도된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이다. 더 나아가 세계에서의 실천과 삶의 방식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다. 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

- 1) 신구약 성경에서 혼합주의가 이스라엘과 교회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살펴본다.
- 2) 이론적 접근이다. 이원론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송인규와 이만열의 논의를 통해 이 두 사람이 현실진단과 그 처방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 3) 역사적 접근이다. 서구 교회의 역사에서 콘스탄틴주의와 한국 교회사에서 잘못된 정치 참여를 개략적으로 살펴면서 교회의 세속화, 즉 혼합화가 교회 타락의 문제이다.

이 글은 세계관의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을 주장한다. 건물을 해체하고 새로 짓는 재건축보다는 대폭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리모델링이 적절하다.

1. 이원론 비판

이우너론은 교회와 세상을 성과속의 대립구도로 보고 세상을 타락한 곳으로 부정적으로만 보는 관점이다. 거룩한 곳인 교회는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나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원론 비판은 근거는 하나님나라 신학이다. 하나님나라는 창조 때부터 존재하며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난미은 이 세상의 통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옛 그리스도를 통해 흠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으며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땅이 변화하여 완성될 것이다.

김교수가 말하는 혼합주의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 악한 타락의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드르가 공동체에도 혼합되어 있다. 혼합주의는 정치적인 면만 아니라, 도처에서 발견도니다.

이원론: 타락한 세상과 회복하는 형식
혼합주의: 타락한 세상의 내용

형식의 차이

재세례파: 대조 교회, 반문화 공동체

개혁교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나가는 교회/신자

호튼 기독교세계관을 부정하지 않고 실현하려 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들과 유익을 미국 혹은 우리의 특정 정당의 목적 및 유익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증거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주장이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진리가 아님을 절대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호튼, 165)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를 바 없이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고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항상 개혁의 일차 과제라는 점은 동일하다.

많은 신학자는 서구 교회 타락의 기점을 콘스탄티누스에서 잡는다(Hall, 1997, Newbigin, 2008). 교회 회복의 대안은 콘스탄티누스의 극복의 다른 이름이다. 콘스탄티누스에서는 교회가 사회 안에서 중요한 행위자이기에, 교회다움을 강조하고, 사회와의 대조성을 부각하면, 이원론이다, 분리 모델이다, 분파주의이다, 도피주의이다, 라는 비판을 하기 일쑤다

--> 그렇지 않다. 기독교세계관은 콘스탄티누스와 다르다. 정교분리와 기독교문화와 세속문화의 대립과 투쟁을 주장한다.

일제 강점기의 신사참배, 이승만 정권을 기독교 정권이라 칭하고 3.15 부정선거가 공정했다는 최초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기독교이었다. 박정희 정권을 로마서 13장의 이름으로 복종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마치 계시록 13장의 원수로, 악마화하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던가. 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서 그때그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도자를 성경으로 옹호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서리이었던 전두환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한 것은 이원론적 행동인가, 혼합주의가 배태한 비극인가.

--> 역사적 오류 비판 정당. 교회가 특정 정당과 이념과 동일시하고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됨. 주류교회의 정치적 혼합주의 인정. 그러나 모든 교회와 신자가 그렇지 않음. 대부분잇 신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국민 혁명당 부정적으로 봄

이원론은 기독교 신앙과 부합한다. 예컨대, 하나님과 세상, 초자연과 자연,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기독교와 일치한다. 맞음

성속이원론이 문제

성속적 이원론의 세상관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속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성속을 혼합한다. 기준의 파괴. 이론적으로 성속은 구분(혼합금지)해야한다. 그러나 성속을 고정시켜서는 안된다. 교회, 특정교회는 거룩하고 다른 교회는 속되다. 교회 내는 거룩하고 세상은 항상 악하다. 교회내에서 악이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혼합이다.

제38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 1)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이 ‘신이 아테네에 보낸 등애’와 같다고 말했고 키에르케고어는 자신이 덴마크 시민들에게 보내진 ‘가장 높은 분을 위한 첩자’라고 주장했다.
- 2) 김 교수는 기독교세계관 운동가 중에서 요더와 비슷한 ‘이원성’ 개념을 제안한 이로 김현수를 들고 있다.
- 3)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윤리적 이원론이다.”
- 4) 다만 “선과 악의 주권자요, 때로는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보건대, 선과 악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는 헤겔식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짙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속성 내지 일부로 인정하는 듯 들리기 때문이다.
- 5) 호튼, 「세상의 포로 된 교회」, 103.
- 6)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238.